6-29-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1-10
말씀 제목: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육신의 죽을 몸을 영적으로 이미 벗어버린(골 2:11)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옷입게 되는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의 날만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몸이 죽어 몸을 떠날 때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며 자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세상에 사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심판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고후 5:10)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을 때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스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계해야 하는 그분의 눈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히 4:12-13)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까지도 찔러 가름으로써 사람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생각들과 모든 의도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 드러나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한 일들을 낱낱이 밝혀 내시어 상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가지 면류관들이 충성된 종들에게 수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은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전 3:12-15)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하는 말씀들을 사도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사복음서, 사도행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리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2,3 서 유다서 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의도들과 행위들을 깨닫고 항상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히 4:16)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죽지 않고 있다가 변화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죽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 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 15:51-52)

지금 우리는 중동에 평화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우리가 휴거되는 날 세상은 거짓 평화를 추구하다가 갑작스런 멸망이 임하게 되어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때와 시기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천 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눅 21:25-28)

주님께서는 이천 년 전에 우리가 몸을 벗게 되는 휴거의 날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 앞에 임박했으며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7 년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